

"서예, 예쁜 글씨, 마음을 담은 손글씨....
캘리그래피는 여러 말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캘리그래피에 관한 기술적인 것을 습득하는 수업이 아니라,
글씨에 내가 묻어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수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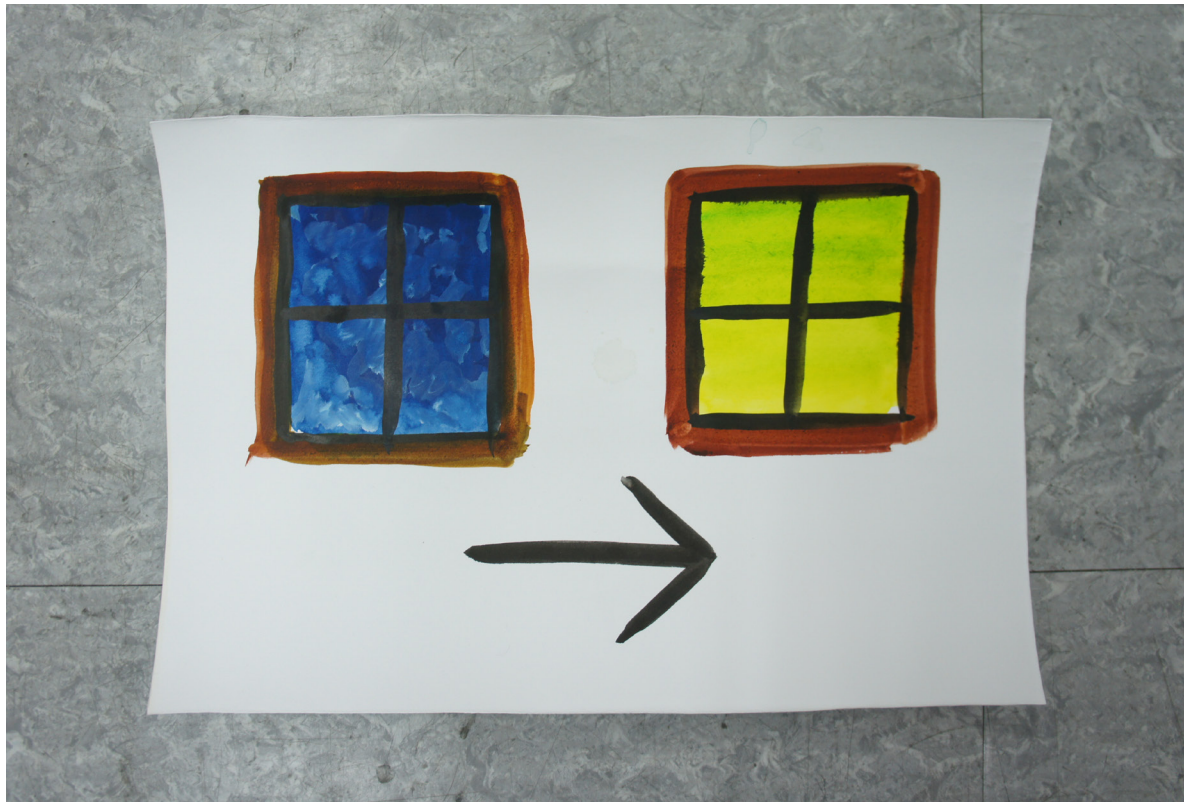
또한 글씨를 해체하고 조립함으로써 글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캘리그래피에 대해 확장해 사고하는 수업입니다."

it's my magic

캘리그래피는 표현하고 싶을 때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
기술적인 것보다는 글씨에 나의 감정과 느낌을 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아이들의 여러 형태의 캘리그래피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마법을 갖길 바래 지은 이번 수업의 부제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한것은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캘리그래피에 대해 확장 사고할 수 여러 실험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회 수업이 시작하면, 근황 나누기를 먼저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씨를 따라 쓰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 안의 이야기를 충분히 풀어내고
글씨에 나의 감정,생각등이 묻어나면서 나만의 캘리그래피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회차

오늘 내 마음을 날씨로 표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힘든 일들이 많아 비가 내린다면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아이, 기분이 좋아서 해를 표현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음은 어땠어요?"

"저는 제 방에서 바라본 창문을 표현했어요. 왼쪽은 새벽에 학교
갈 때이고 오른쪽은 집에 올 때 어둑해진 걸 나타낸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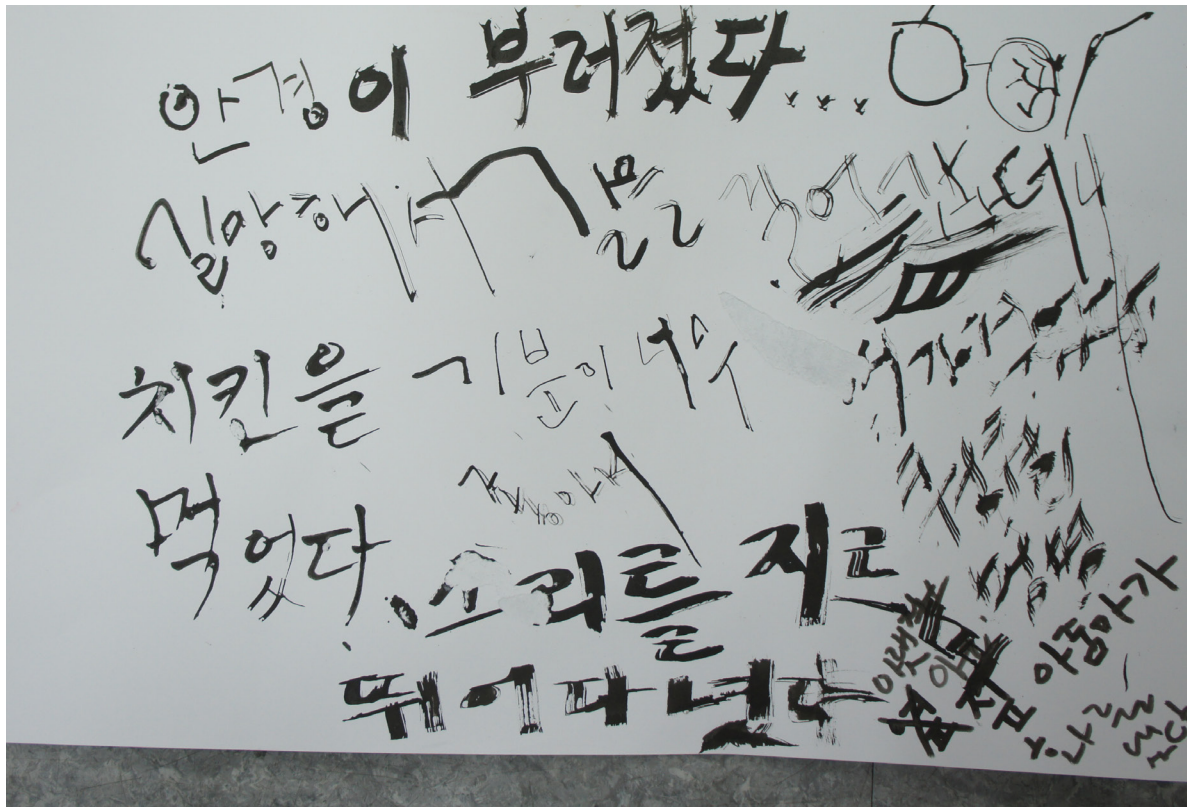
2회차_1

종이를 오려 자신만의 글씨체로 표현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한 아이의 발표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거 같아요,
시간은 빛과 같아요"

"저는 야구를 정말 좋아해서 저만의 글씨체로 표현했어요!"





3회차

옆에 앉은 친구와 여러 가지 도구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4회차

종이 위만이 아니라 물 위에도 글씨를 표현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5회차, 6회차

책상 위에 주어진 종이만이 아니라 운동장이 큰 도화지라 생각하고 표현해보고
동시에 공감각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나뭇가지와 물을 이용한 고양이(cats)라는 글씨입니다.



7회차

자연에서 얻은 것들로도 표현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8회차

평소 조용하던 친구가 조물조물 무언가를 만들어 냅니다.

오른쪽 작품은 파도를 표현한 거라고 하네요.



프로젝트 실행

앞에서 배운 경험들을 토대로 학교 밖에서 공유되어지는 걸 경험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사람들과 소통할지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 다수결로,
학교 언덕과 도서관 올라가는 길이 힘드니 그곳에 표현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각자 쓰고 싶은 말들을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며

어려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았는데,
아이들이 그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하기에 10회차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표현을 통해 저 또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교에서도 이러한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며
아이들이 고유의 존재로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캘리그래피 / 김혜진 / 1학년

저는 1학년 김혜진이고요. 2학기 한 학기 동안 캘리그래피를 했어요. 캘리그래피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씨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글씨’요.

저번에 캘리그래피 수업 때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캘리그래피가 전혀 아니던데,

저는 처음에 캘리그래피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뭔지 몰랐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뭔지 몰랐는데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재미있었어요. 신기했어요. 캘리그래피가 글씨인지 몰랐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거나 아쉬웠던 게 있다면?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야외에서 많이 했던 거요.

수업시간이 저녁이었는데도?

네, 저녁에도 밖에서 많이 했어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각자 원하는 장소를 정한 다음, 자기가 쓰고 싶은 글씨, 생각, 감정을 적어서 그 곳에 글씨를 써보는 거예요. 그게 거기였어요. 정문 안 쪽 벽돌. 그 때 딱히 생각이 안 나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도 괜찮다고 해서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그렸어요.

아직 남아 있나?

비 오면 지워지는 거예요.

아, 그럼 지워졌겠다. 그런데 지워지기 전에 은서가 영상을 만

들었다던데?

서로 모르는 사이 콜라보를 했네요.

아쉬웠던 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잖아요. 그때 원래 야자를 하는데 시험기간 때도 수업을 하니까 그 점이 좀 힘들었어요. 출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무리 프로젝트 할 때, 캘리는 정확하게 장소를 정해서 예쁘게 글씨를 썼으면 좋겠어요. 분필로 했는데 생각처럼 예쁘지 않고 지워지는거니까 좀 아쉬웠어요.

기록 13.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이 순간을 기분 좋게 떠올리고, 때로는 지칠 때 재즈음악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기를.
성인이 되어 가끔 재즈공연을 찾아가서 이 때를 추억하며 즐길 수 있기를 바라본다.

재즈 재즈와 만난 양정여고

기록자 박예은



재즈와 만난 양정여고, 그 세 해 동안의 여정

“자, 애들아 이번에는 같은 코드를 칠테니까 즉흥적으로 아무거나 떠오르는 멜로디를 불러봐.”

“네 ?? 으악 !!!!”

세 해동안 여러명의 아이들과 재즈음악으로 소통하면서, 매년 모든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당황해했던 것은 즉흥연주(improvisation)였다. 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자 내가 개

인적으로 양정여고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표현의 방법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로페셔널한 재즈뮤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재즈노래를 부르거나 즉흥연주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만나온 많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아마추어들이 재즈노래를 부르고 즉흥연주를 했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 보였다.

양정여고에 처음 가게 된 것은 2014년 늦가을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재즈수업을 신청했던 7명의 아이들과 학교내에 있는 양정교회에서 8주 동안 함께 했다.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재즈음



악을 가르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라 낯설기도하고, 아이들이 재즈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면서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추운 겨울날 난방이 되지않는 교회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피아노치던 기억, 얼어붙은 언덕을 미끄러질까 조심조심 오르내리던 기억, 화장실이 잠겨 멀리있는 건물까지 뛰어갔던 기억들이 떠올라 슬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5년은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가되었고, 씨프로그램과도 함께 하게 되었다. 또 메르스때문에 첫 수업 이후에 한동안은 수업을 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한다. 잠잠해지고나서야 다시 수업을 했을 때는 처음 왔던 아이들의 절반 정도밖에 오지못해서 당황했던 기억도 있다. 그렇게 메르스의 여파로 첫 시작부터 힘들었던 수업이었지만, 4명밖에 안되는 적은 인원이라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좀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점들이 많았다. 아이들도 네 명이 푹푹 뭉쳐서 능동적으로 노래하고, 많이 웃고 참 즐겁게 매 주를 보냈었다. 마침 양정여고에서 여는 페스티벌이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 공연을 뜻밖에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전교생 앞에서 재즈음악을 직접 부르고 표현했던 그 날은 나에게도 잊지못할 귀한 추억이 되었다.

음악의 힘이란 그런 것 같다. 우리들의 설레이거나 또는 혼자였던 시간에 음악이 함께 있어서 그 기억이 사진처럼 가슴속에 남는 그런 것. 이후에 그 음악을 떠올리면 그때 그 순간이 함께 떠올라서 시간을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양정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슴뛰는 시간들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곳에 재즈음악이 함께하길 바랬던 것 같다.

2016년은 세번째 해라 조금은 더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금은 가졌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까지 중 가장 어려운 여정이진 않았나 싶다.

학교안 예술학교 프로젝트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졌는데 첫 번째 파트는 모든 과목이 크게 한 덩어리로 모여서 진행되고, 두 번째는 두 과목씩 한 팀으로 진행되고, 마지막은 한 과목씩 따로 흩어지는 식이었다. 그 중 두번째 파트에서 재즈수업은 건축과 한 팀이 되었다. 재즈와 건축을 섞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니!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막막했다. 심지어 난 건축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말이다. 답답한 마음을 한 켠에 가진 채로 우선 건축의 양재찬 선생님을 찾아갔다. 함께 얘기를 나누어보니 양재찬 선생님도 역시나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고, 조금



한 나보다 훨씬 차분하고 연륜있으신 선생님 덕에 조금씩 방향을 찾아갈 수 있었다. 우리의 결론은 이러했다. 건축과 재즈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 재즈음악이 흘렀던 기념적인 공간이나 특별한 장소에 대해 접근했다. 그리고 학교안에서 재즈음악을 연주하면 좋을 만한 공간을 찾고, 그곳을 어떻게 연출할 지 구상하고,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건축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는 나도 학생이 되어 경청하게 되었다. 잘 몰랐던 건축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하게 되고, 무엇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공간을 바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재즈보컬리스트로서 느낀 점은 재즈와 건축을 대하는 자세는 때론 전혀 반대의 성질을 갖는 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흥미로웠다. 건축가는 철저하게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을 위해서 작업하고, 또 그 주변의 환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좋은 건축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에 비하면 재즈는 매번 새로워야하고, 재즈뮤지션들은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 편안하기 보다는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만한 재미있는 요소를 계속 던져줘야 한다. 누구보다 연주하고 노래하는 자신을 위한 음악이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게 재즈의 특성이니 말이다. 또 작업의 방식 또한 반대였다. 재즈는 같이 연주하는 팀과 함께 하

는 작업이기에 타인에게 오픈되어 있어야 하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건축은 실행하는 단계 이전까지의 작업은 개인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반대되는 요소들이 나에겐 흥미로웠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들에겐 약간의 혼란을 주지 않았나 싶다. 재즈와 건축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사실 각각 재즈 또는 건축 수업을 신청했던 아이들이었는데, 재즈를 신청했던 아이들은 건축에 큰 흥미를 두지 못했고 반대로 건축을 신청했던 아이들은 노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부끄럽지만 이 프로젝트는 냉정히 말해서 실패였다. 안타깝고 속상했지만, 이 경험에서 얻은 것들도 많으니 너무 슬퍼하거나 기죽지는 않기로 했다. 두번째 파트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각각 두 과목씩의 조합이 잘 어울리는지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를 더 많이 고민하면서 조를 짰다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재즈와 드로잉의 조합은 어떨까, 재즈와 미디어 아트의 조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어찌됐건 어디가서도 하지 못할 경험을 했고, 많은 걸 깨달았으니 적어도 내겐 큰 공부가 아니었나 싶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온전한 재즈 수업이었다. 전 해에 학교축제에서 재즈공연을 했던 모습을 인상깊게 봤던 학생들과 음악을 좋아하고 재즈에 흥미를 가진 친구들이 신청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재즈를 가르치거나 설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나 자신도 재즈라는 음악에 흥미를 갖게 된 건 누군가 내게 그 음악에 대해 설명해 주거나 어딘가에서 배웠기 때문이 아니다. 그냥 우연히 재즈를 듣게 되었고, 어떠한 멜로디를 강렬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잊지못하고 계속 흥얼거리게 된 것이 계기였다. 아이들 또한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재즈라는 음악에 매료되기를 바랐다. 그러면 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재즈음악을 계속해서 찾아 듣게 될 테니까.

최대한 많은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고, 재즈라는 음악의 특성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곡을 다양한 뮤지션의 버전으로 들려주었다. 라이브로 생생하게 연주되는 음악의 값어치를 느끼게 하고 싶어서 되도록 공연실황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다. 또한 노래를 많이 많이 부르게 했다. 매 수업마다 새로운 곡을 함께 부르면서, 재즈곡을 노래하는 행위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를 원했다. 재즈는 내가 매주 부르는 음악, 새로운 곡을 익히는 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는 느낌을 갖길 바랐다. 그저 본능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부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었다. 수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 아이들에게 어떤 게 재미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재즈노래를 직접 부른 것, 한 소절씩 주고 받으면서 켜 한 것 등 다행히도 내가 의도했던 요소들을 아이들은 재밌게 받아들인 것 같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려면 역시나 마지막 공연이 아니었을까 싶다. 매번 양정여고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공연을 해왔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때론 힘들기도 하다. 무사히 공연까지 진행이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공연이 취소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미 섭외했던 뮤지션들에게 취소 통보를 해야하는 일이 난감하다. 그래서 매번 굳이 공연을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누구도 나에게 꼭 공연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온전히 나의 결정으로 공연을 진행하게 되니까. 하지만 공연을 무사히 끝내고 나서 생각해보면 너무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니 매번 또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재즈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대에 서는 경험은 꼭 필요하다. 프로이든 아마추어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음악하면서 매번 들어왔고 공감하는 얘기가 하나있다. 음악은 방구석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말. 앞서 얘기했던 재즈의 특성이 철저하게 연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음악을 누군가는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이다. 사람들앞에서 연주하고 노래해야 거기서부터 재즈음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태어난 음악이고 그렇게 살아온 음악이기 때문이다, 재즈는.

양정여고 아이들이 그렇게 떨리고 짜릿한 생생한 경험을 하기를 바랬다. “내가 무대에 서다니. 내가 사람들앞에서 재즈노래를 부르다니. 짹 미쳤어!”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순간에 이 음악이 살아있다는 걸 또 음악과 함께 자신도 살아있음을.

첫 무대에 서는 첫 경험이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는 지 나 역시 겪어봤기에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난 그 순간을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평생 잊지 못한다. 그 첫사랑 때문에 아직까지 재즈뮤지션으로 살고 있다. 많이 배워서 재즈에 대해 잘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재즈음악이 너무 좋았고 나를 설레

이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근두근한 경험을 적어도 한번쯤은 양정여고 재즈반 아이들이 갖기를 원했다.

재즈공연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이들과 함께 적당한 장소를 의논했다. 그 중 한 친구의 아이디어가 바로 양정분산부인과였고 다들 그곳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모였다. 양정여고 이태경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양정분산부인과에 연락을 취해주셨고, 몇일 뒤 공연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었다. 담당해주신 양정분 산부인과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에 우리는 무사히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아이들도 재미있게 자신들의 몫을 다 하고, 관객은 산모들과 의사, 간호사 분들이었는데 공연의 분위기도 참 좋았다.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말해준 좋았던 점은 직접 재즈 연주자들을 눈으로 본 것과 그들과 함께 팀이 되어 노래한 것이 굉장히 인상깊었다고 한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이 순간을 기분 좋게 떠올리고, 때로는 지칠때 재즈음악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기를. 성인이 되어 가끔 재즈공연을 찾아가서 이 때를 추억하며 즐길 수 있기를 바래본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에 동참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없던 나에게 양정

여고 학생들과 함께 했던 지난 삼년은 값진 시간이었다.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아이들에게 재즈음악으로 다가가는 것이 기쁨이었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걸 배우게 되었으니. 함께 동고동락했던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재즈 / 이민영 / 1학년

저는 1학년 이민영이고요. 재즈 수업을 들었어요. 재즈 수업을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이걸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재즈 수업이 끝나고 따로 날짜를 잡아서 다같이 회식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뭐가 즐거웠냐?, 뭐가 기억에 남았냐?”고 물어보셨는데, 애들이 모두 “재즈가 전혀 모르던 장르였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다 같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고. 두 번째는 모두 함께 즐긴다는 의미로 ‘함께’라고 넣었어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재즈가 모두 다같이 즐기는 노래가 됐고, 또 산부인과에 공연을 하러 갔거든요. 거기에서 산부인과 산모들도 다같이 즐기는 노래가 됐어요.

목소리가 정말 좋은데, 혹시 진로랑 관련있는지?

맞아요. 뮤지컬 쪽에 관심이 많아요. 뮤지컬 무대기획과 쪽. 뮤지컬에는 여러 이야기가 겹들여지니까 재즈풍 노래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관련있겠다 싶어서 신청했어요. 노래에는 늘 관심이 많았고요.

그럼 생각했던거랑 수업이 비슷했는지?

처음에는 재즈도 ‘재즈 이론 같은 거 배우겠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다같이 모여서 노래를 듣고 직접 따라 불러보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하면서 따라 불렀는데, 갑자기 거기서 음을 몇 개 따고 자유롭게 변형을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 총체적으로 멘붕이 됐어요. 따라 부르는 건 하는데 자유 변형

같은건 낯설어서 처음에는 “나나나나나”(따라부르는 모습 흉내) 하다가 나중엔 “나~나나나~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지난 번에 수업 구경하러 갔을 때 들었던 멜로디 같은데?

맞아요. 매주 다 다른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 처음 배웠을 때였을거예요. 조금 더 있었으면 변형된 것까지 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중간쯤. 총체적 멘붕과 ‘그래도 해야지’가 반반이었던 상황이에요.

수업들은 친구들 모두 함께 변하는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 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는 못 해요. (울먹)” 이런거였다면 나중에는 “ 쌤, 어차피 시키실 거 해보

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산부인과에서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매주 배운 노래들을 각각 한 명씩 나눠서. 서로 개인 당 한 곡씩 불렀어요. 시험 끝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공연을 하는거라 ‘망신은 당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노래 틀어두고, 계속 들어보고, 잘 변형한 예시들 찾으면서 이리저리 바뀌보고.. 그렇게 다시 준비시간을 가졌던 게 기억이 나요.

작곡 반이랑 콜라보해도 재밌지 않을까,

좋죠. 작곡반 버스킹 하는데 끼어서 “오~”(노래 부르는 제스처) 이러고.

가장 기억에 남는게 있다면?

자유를 얘기했지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만 하고 있다가 화요일 저녁만 되면 정당한 땡땡이를 하는 시간. 그래서 너무 즐겁고 기억에 남아요.

말랑창작학교를 친구들에게 추천한다면?

전 1학기 때 건축+재즈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는 재즈가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인원이 줄어가고 해서 외로운 마음이 커지는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애들아, 재즈 하자”는 말보다 2학년 때 또 하게 되면 은근하게 불러서 “야, 내가 이런 거 했

는데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소개하려고요.

다른 사람들은 말랑창작학교에 대해 잘 모르나?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영상반이 시내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재즈 회식 끝나고 시내로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 때 만나서 쿠키다스도 받고 그랬는데, 박현주 쌤이 오셔서 “너네 이태경 쌤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른 수업 하는것만 봐도 되게 특이해서 알게되요. 드로잉 수업이랑 겹쳤던 적이 없는데, 저번에 밤중에 하교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형광색 그림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알고보니까 드로잉 반에서 한 그래피티더라구요. 밤중에 무서울 뻔 했는데 가까이가서 찬찬히 뜯어보니까 꽤 즐겁고. 여러가지로 말랑창작학교가 계속 기억에 남아요.

기록 15.

주머니의 연필, 위대한 낙서

기록자 이태경

#2 주머니의 연필

미국의 소설가 폴 벤저민 오스터(Paul Benjamin Auster, 1947~)은 어릴 적 뉴욕 자이언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전신)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폴 오스터가 난생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게 된 날, 경기가 끝난 후 가족과 운동장을 가로질러 센터필드의 출입구로 나가기 위해 걸어가다가 폴은 평소에 가장 동경하던 윌리메이스를 보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 사인을 부탁하고 응낙을 받지만, 선수도 폴도, 가족과 일행 누구도 연필을 갖고 있지 않아 사인을 받지 못합니다. 이후 폴은 어디에나 연필을 갖고 다니는 습관을 갖게됩니다.

나는 어디에나 연필을 갖고 다니기 시작했다. ...중략... 그 연필로 뭔가를 하겠다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략... 다른 것은 몰라도 세월은 나에게 이 것 한 가지만은 확실히 가르쳐 주었다. 주머니에 연필이 들어 있으면, 언젠가는 그 연필을 쓰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다. 내 아이들에게 즐겨 말하듯, 나는 그렇게 해서 작가가 되었다.¹

‘감각을 만나다’ 사진 아뜰리에를 진행해주시는 최동인 작가님이 늘 아쉬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저녁에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다보니 학교사진과 실내사진 등 한정된 소재로만 학생들이 찍게 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진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오시는 화요일에만 사진기를 만지작거리볼 수 있는 것도요. 학생들도 내게 카메라가 있으면 내 몸의 일부처럼 손 안에서 가지고 놀 수 있을 텐데, 찍고 싶은 설레임이 일어나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바로 찍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환경들을 모두 갖추어야지만 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양정여고의 학교안예술학교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든 학생들에게 창작에 필요한 모든 악기나 카메라 등이 완비하고 쥐워 줄 수 없는 것은 학교에 내려오는 일반적인 교육 예산이 대부분 학생들의 교통비나 재료비, 강사비 등 실비 위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약이 많아서입니다. 학교안 예술학교는 씨프

로그램과의 협업과 지원 덕택에 선생님들의 이러한 필요들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고 예술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안예술학교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세부적인 교육 과정에 앞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가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환경은 새롭고, 낯설고, 흥미롭고, 가능하며, 쉽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수용가능하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며,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비로소 아이들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하는 자기 경험을 갖게 되며, 이러한 자기 경험을 통해 통찰할 수 있게되고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술이나 성과보다는 경험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 무언가를 만들고 표현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보도록 하는 것이 학교안 예술학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손에 그 도구를 쥐어주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함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에 연필이 들어 있으면, 언젠가는 그 연필을 쓰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다.

1. Paul Benjamin Auster, 왜 쓰는가?(WHY WRITE), 김석희 옮김 (서울: 열린책들, 2005), 41

#3 위대한 낙서

2016년 학교안 예술학교에는 저 역시 수강생으로 드로잉 아틀리에와 영상 아틀리에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밖에서 운영자로서만 지켜보면서 저도 안으로 들어가 예술을 누리보고 표현해보고 싶은 욕망이 날로 커져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드로잉 아틀리에에 참여한 학생들은 예술학교의 시작과 끝을 ‘낙서’로 재미있는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의 낙서를 해보며 느낀 것은 무엇보다 ‘환경’의 중요성이었는데요. 이 두 번의 경험과 시간들이 한 학기 동안 드로잉 아틀리에를 통해 경험하고 통찰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의 중심에 놓여있던 것 같아서, 이번 장에서는 첫 번째로 가졌던 낙서 수업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술학교에 입학해서 가진 첫 시간은 모든 과목의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 진행하는 공통 수업이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티라고 이름이 붙여져있었는데, 실제로 그 수업이 끝난 후 그 시간을 수업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색다른 방법으로 신나게 낙서하며 놀았다는 느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부제는 ‘라스코 동굴을 거닐며’ 였습니다. 먼저 드

로잉 선생님이 캔트지 4~5개를 이어 붙인 거대한 캔버스에 자유롭게 선을 그으며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며 모두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굴 내부의 길을 그린 커다란 지도를 한 장 보여주시며 안내를 해주셨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인류 최초로 동굴에 그림을 그려보게 된 원시인이다. 기존에 그림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고, 인류 최초로 그리는 것이기에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이는 당연한 것이고, 무엇을 그려도 상관이 없다. 심지어 깜깜한 동굴이어서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씩 건네 받은 것은 목탄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마커나 붓 같은 것은 없었을 테니까요. 목탄을 그리기 도구로 사용한 건 개인적으로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손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새까만 그늘음이 손에 묻어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서 조금만 세게 잡으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도 들었구요.

우리는 곧 목탄 하나씩을 손에 쥔채 강당 뒤로 들어가는 문앞에 섰습니다. 강당 뒷 편은 불을 모두 꺼놓아서 정말 어두운 동굴 입구에 서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하나, 둘, 셋!” 하는 신호와 함께 모두가 학교 안에 생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깜깜한 동굴에 중간 중간에 촛불이 간간이 놓여있어 더욱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강당 뒷편에는 무대로 드나들 수 있는 좁고 긴 복도가 무대 뒤를 회랑처럼 둘러싸고 있고(아래 그림 A), 지하실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계단 같이 조심해야하는 곳에는 공사장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깜박이 경고 등도 놓여있었어요. 계단을 따라 돌아 내려가면 정면과 양 옆으로 높다란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아래 그림 B) 이 모든 곳의 벽에 캔퍼스가 줄줄이 이어져 거대하고 기다란 그림판이 만들어져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캔트지 200장을 준비해오셔서 점심부터 선생님들이 동굴을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그림을 그리는 원시인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제한은 없었습니다. 신나게 무언가를 낙서하고 난 뒤에는 낙서가 되어있지 않은 벽을 찾아서 동굴을 ‘거닐며’ 신나게 저마다의 무엇을 분출해내었습니다. 내게 그림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평가받기 위해 혹은 과제로 어쩔수 없이 그려야 했던 경험으로 남아있지만, 이 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신나게 그리있는 순간들은 그런 경험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잘그리고 못그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즐겁고, 유쾌하고, 색다름을 느낄 수 있고 주위의 시선에 상관없이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는 순간을 누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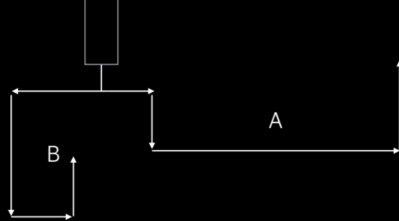
예정된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끝났지만 시간을 더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충분히 동굴 벽화를 그리는 시간을 갖고 모두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먼저 벽화 작업을 끝낸 학생들이 새까매진 손을 서로 맞대고 웃기도 하고, 기념으로 사진도 찍고 있었어요. 또 몇 명의 학생들은 동굴벽화를 시작하기 전 선생님이 퍼포먼스를 하며 그렸던 선위에 자신의 낙서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인류 최초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된 사람이라면 ?



이제 우리의 라스코 동굴로 들어가보자!!!

동굴지도
탐색방법 : 자유롭게



- 종이 위에
- 어두운 곳 조심조심
-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드는 부분 폰카로 한 장 찍어오기

아크릴 물감을 찍하고 짜내어 손으로 드로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선을 긋기도 하고, 문지르거나, 뿌리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표현하였어요.

모든 아이들이 동굴에서 나오고, 짧은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표현을 통해 얻는 자기 경험과 통찰’이란 주제였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 같지만, 동굴 벽화를 만들고 나온 사람이라면 이미 그 어려움이 반감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을 통해 들은 모든 말들이 한구절 한구절 내게 깊숙히 다가왔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번째는 ‘나는 그림을 잘 그린다, 나는 그림을 잘 못그린다.’라는 프레임을 부수고 ‘그림 그리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잘한다 못한다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그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이들과 매일 수업을 하는 교사로서 정말 강렬한 영감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업의 커리큘럼과 내용, 평가에 대

해서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학생이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는가’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라스코 동굴을 거닐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는 표현을 통해 얻는 자기 경험과 통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자기 관찰과 표현을 통해서 타인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며,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을 소중히 하는 것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모든 예술가는 ‘용기있게 자신(과 세계)를 존중한 사람들’이며 ‘예술이 예술일 수 있는 이유는 고유성에 있다’는 것인데요. 예술을 누리는 것이 자기 관찰과 표현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한 충분한 자기 경험은 공감능력과 자기 존중을 두텁게 한다는 것 그리고 저마다의 고유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통찰은 인상깊었습니

다. 그리고 ‘용기있게 자신(과 세계)를 존중할 수 있는 예술가’는 ‘더 나은 자신(과 세계)를 위해 용기있게 모험하는 혁신가’들과 많은 면에서 맞닿아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게 하였습니다.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야 타인을 존중할 수 있고, 내가 나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데 예술은 풍부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위대한 낙서’ 만들기는 우리는 예술에 대한 호기심을 안겨주며 학교안 예술학교의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즐겁게 그림을 그렸던 순간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기록 16.

누구든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기록자 한서은

예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울타리 안에 놓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하고 싶은 마음을 충당 할만한 재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요.

예술 교육이 실현되는 모습은 이러한 예술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곧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표현의 기술력에 따라 성적을 받습니다. 전공
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일찍이 전문학교에 진학하고 피나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예술적 경험이
보편화되고, 교육에서 예술의 위신이 높아진 지금까지 예술은 여전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
닙니다.

누구든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말랑창작학교는 꽤나 예상밖의 해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중국어 선생님, 예술가 9명이
함께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예술에 대한 의향이 있을까, 할 수 있는 환경은 될까, 중국
어 선생님은 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 좋은 예술가는 좋은 예술 교육가일까. 이렇게 설익은
생각들로 가득했으니 해답을 찾겠다던 제 자신조차 얼마나 고루했던지요.

우리가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 태도의 전환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경 선생님은 자존감의
회복으로, 류재훈 선생님은 ‘고유한 나’의 발견으로 방과후 예술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셨
습니다.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만들어보는 것, 성패에 관계없이 해
보는 것,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나’ 자신이 있어야 한다, ‘

나’ 대신 정답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술 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올림이 있었습니다. “예술에는 정답이 없다”고 누구나 늘상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정답을 기
대하지 않는 우리는 몇이나 될까요. 새로운 화자가 탄생하기 어려운,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집요한
환경에서 의미있는 시도일 것 같습니다.

2년여의 시간동안 함께해온 말랑창작학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
이 있는 듯 합니다.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예술의 시작’이라는 것. 그렇기에 말랑창작학교의 선생님
들은 교육자보다 동등한 예술가로서 아이들을 만나고, 잘해야하는 수업이 아니라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의 학교, 보
통의 예술 프로그램과 달리 보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대로 해봐.”
“진짜 이렇게 해도되요?”
“응 당연하지.”

모든 수업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대화를 떠올려봅니다. 말랑창작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적응기간이 필요했다는 고백에 반박자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해본적 없는 (좋은)
경험이었다는 말에 잠깐 우쭐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큰 종이에 아무렇게나 그리는 것, 내멋대로 멜
로디를 바꿔 부르는 것,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씨로 표현하는 것이 해본적 없는 것이라니, 사실
많이 울컥했습니다. 대수롭지 않을만큼 일상적인 것들인데 이 역시 고3이 되면 할 수 없는 것이라

고 확신할 때, 그만큼의 한계는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일상을 일상으로 회복하는 일, 예술이 선택
이나 사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을 의뢰받은게 아니잖아요.”

예술은 왜 중요할까요, 예술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매번 계속되는 선
문답에 류재훈 선생님이 던진 한마디가 오래도록 남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이 사유하고 느낀
것들을 글로 표현해냈듯이, 아이들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 나
타난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금새 문법보다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기교를 부릴 필요없이 얼마
든 표현해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고요.

말랑창작학교가 양정여고에만 있으란 법은 없겠지요. 이런 고등학생, 이런 선생님, 이런 예술가들
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알았으면 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말랑창작학교’
가 생겨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예술은 아무나 아무때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Outro

신정원 / 아이들이 뭔가를 표현하고 뭔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고
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강사들 안에서도 크루가 있어야겠지
만 아이들 안에서도 동지들이 있으면 얼마나 삶의 여백이 생길까 하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류재훈 /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학교
수업을 줄여달라. 뭐 하여튼 이건 구태의연한데, 어떻게 보냐 하면 교
육은 몇몇 아이들에게는 지나친 우월감을 갖게 해주고 대부분의 아이
들에게는 자기 비하나 모멸감,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구조잖아요. 솔
직히 얘기해서. 졸업하고 나가면 졸업 이후에 불합리한 체계를 그대
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닌가. 저임금, 수직 상하
관계에서의 폭력이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내가 못 배워서 그
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이 변하기를 바라요.
공교육이 변하길 바라는데, 지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도 너무
당연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몇몇 아이들에게는 지나친 우월감을 갖
게 해주고, 우월감을 가진 아이들은 칭찬과 보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
해서 더 이상 다른 걸 하지 않고 거기에서의 성과나 지표를 높이려고
하고 나머지는 반대의 상실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예술학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시간도 그
렇고, 회차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없죠. 그냥
교육에, 학교 안에 조금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 같은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런 자기 행위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과 이해를 갖기를 되게 바라거든요. 근데 그게 쉽진 않죠. 아이
들을 둘러싼 현실은 그렇지 않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
으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좀 바라는 것들은 아이들이 자기가 놀
고 그리고 선생님과 대화 나누고 했던 자기 행위 자체를 스스로 존중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이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런 경험

을... 전 '필쫌긋' 할 때도 인상을 갖기를 되게 바랐거든요. 인상. 인상
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주관적으로 인상을 가
지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것들 것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또 지속하게 된다면 그
런 관점에서 새로운 실험들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지원이나 이
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우리
가 갖고 있는 사심은 어쩔 수 없이 짧고 순간이지만 애네들을 뭔가를
심어놓고 오자,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보자, 뭐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은 좀 진짜 사심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아요.
사심, 흑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영준 / 음악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한 공간은 아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학교 환경 내에서 공간을 그 수업들
을 하기에 편하게 만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 Program / 선생님과 애들이 만나는 순간들을 봤잖아요. 보면 묘하
게 학생들이 선생님을 다 닮아 있어요. 양정여고 친구들이 수업에 임
하는 자세가 선생님의 삶 자체, 태도 등을 분위기로 다 흡수하는 구나
싶더라고요.

이태경 쌤 / 일주일에 한 번 씩 여행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표
현을 한 애들도 있어요. '내가 정말 드로잉 수업에서 이런 걸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진짜 예술학교 아니면 이런 걸 할 수 있었을
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드로잉을 떠나서, 자신이 한 새로운 경
험들에 대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
장 많이 느끼는 건 아이들한테 굉장히 허용적인 환경, 그리고 선생님
들이 정말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애네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을까 등 관계 맺기에 대한 고민도 아이들한테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술 수업을 하면, 드로잉과 영상 작업 자체 보다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거는 ‘대화’거든요. 영상 할 때도 마찬가지로 드로잉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걸 하게 됴으로써 오히려 예술과 동시에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나랑 애와의 다른 점들, 차이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경험 하나하나 자체가 커리큘럼 자체로는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경험을 받아들이는 자기 인생은 조금씩 바뀌는 거 같아요. 이러한 경험의 찰나들이 분명히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다른 무언가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발현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술학교에서의 경험이 이벤트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말고 어른들의 변화에서도 감동의 순간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장 보수적인 분들은 관리자 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총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분은 교장선생님도 아니고 행정실장님들이세요. 본인이 직접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작은 시도들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마찰을 빚어요. 그래서 학교 벽화 할 때나 화장실 바꿀 때나 항상 생각했던 것들보다 축소시켜서 못했을 때가 많아요. ‘학교안 예술학교’도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이번에 그래피티를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학교에 가능한 벽이 있냐고 하셨을 때, 시작부터 ‘이거 어떻게 허락을 받지? 그래피티? 좀 세다.’ 막 이러고있었어요. 교감 선생님은 안 보이는 벽, 최대한 머리를 쭈셔서 들어가는 드러나지 않는 벽을 하나 찾아주셨어요. “거기 좋지 않아요?” 이러셔서 저는 조금 놀랐죠. 우리가 그런 공간을 하나 얻은거죠. 그리고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갔더니, 교장 선생님은 조금 더 책임이 많으시니까 “바닥에 하는 건 어

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건 아예 안 보이잖아요. (웃음) 마지막으로 행정실장님한테 갔는데 놀라운 대답을 들었어요. “바닥에 하고 벽에 해서 그걸 누가 봐요?” 이러더니 그냥 체육관, 우리 학교 딱 들어오면 체육관이 딱 보이잖아요. “체육관 벽에 하던지, 등교로에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행정실장님은 여태까지 가장 강력하게 항상 마찰을 빚어왔던 분이셨어요. 나쁜 뜻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시설의 보존을 위해서. 근데 등교로에 딱 해서 애들이 다 보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놀란거죠. 여태까지와 너무 다른 반응이어서 실장님이 그래피티를 벽화로 착각하시는 줄 알고 “벽화가 아니라 이걸 낙서이고 좀 약간 센 것도 나올 수 있고”라고 했는데 괜찮대요.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3년 동안 애들이 하는 걸 쪽 해봤더니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될 해도 정말 잘 하더”래요. 그래서 등교로에 해서 애들이 다 보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화면을 가리키며) 등교로거든요. 그런 변화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 어른들이 3년 동안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선생님들도 2014년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 이름은 ‘말랑창작예술학교’였고 학교 문서상으로는 저희가 어떤 기존의 대안적 교육을 하는 거니까 ‘대안 교실’, 대안적 교육의 이름으로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렸더니 선생님들이 대안적인 교육에 되게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안내서를 돌렸는데 애들이 아무도 몰라요. “안내 좀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우리 반엔 그런 애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애가 된진 모르겠는데 “우리 반에는 그런 걸 받아야 되는 애가 없어.” 하고, 공부 잘 하는 애가 신청하면 막 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드로잉 터치 소사이어티, 마지막 프로젝트를 해야 해서 4명을, 저희 팀 애들을, 저도 학생이니까 팀 애들을 모아서 담임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드로잉 프로젝트를 해야 해서 두 명만 보충 시간에 같이 할게요.” 이랬더니, “우리 애들 좀 잘 키워줘.” 이러는 거에

요. 뭘 잘 키우라는 건진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우리 반에는 그런 애 없어.”에서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바뀌셨어요. 들어오신 적은 없으시지만, 3년 동안 예술가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예술학교가 진행되면서 선생님들도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까 홍부자(미디어아트수업 참가자들) 얘기들 하셨는데, 오래 하신 선생님들은 해가 가면서 애들이 약간 전의 애들이랑 좀 달라진 걸 느끼실거 예요. 학교에서 이제 그래피티도 허용했으니 아이들의 마지노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뭘 해도 될까?’ 떠올릴 때 “그래피티도 했잖아.”가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좀 더 아이들이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묻고 있어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어떤 욕구들을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학교에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아주 사소한 말이지만 저는 감동받았어요.